

2019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 통보일자	2019. 1. 18.
--------------	--------------

재적위원	9명
------	----

1. 일시 : 2019. 1. 21.(월) 10:10 ~ 12:40
2. 장소 : 본관 2층 소회의실
3. 참석위원 : 이철갑, 김종구, 김경순, 조성진, 김준연, 오정현, 윤종호 (7명)
4. 불참위원 : 박병도, 최원 (2명)
※ 관련 참석자 : 박상순(간사), 박금수(기획예산팀 직원), 김영균(기획예산팀 직원), 손미경(조선대 치과병원장), 원영석(치과병원 총무팀장) 문우영(치과병원 직원), 김진호(조선대병원 부원장), 정종훈(기획실장), 안귀복(기획팀장), 박승모(조선대병원 직원)

5. 안건

- 가. 2018년도 치과병원회계 제2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안) 심의
- 나. 2019년도 치과병원회계 자금예산서(안) 심의
- 다. 2019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책정
- 라. 2019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안) 심의
- 마. 2018학년도 잉여금 처리 원칙 심의
- 바. 2018년도 병원회계 제1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안) 심의
- 사. 2019년도 병원회계 자금예산서(안) 심의

6. 회의 안건

- 박상순 간사가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9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이철갑 위원장이 2019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 말씀을 하고 각 위원을 소개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설명함

가. 2018년도 치과병원회계 제2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안) 심의

- 손미경 조선대치과병원장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 사유는 2018년 8월에 수립한 치과병원 재정안정성 계획에 따른 재료비, 관리비 등 예산 절감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편성과 가결산 및 재투자 사업 등을 재검토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를 파악하여 2019년도 재정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편성하고,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액 196억 8천만원보다 -9억 7천 6백만원(-5.6%) 감액한 187억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다고 하다
- 조성진 위원이 지출 항목 중 교수급여와 관련하여 질의하다
- 손미경 치과병원장이 감축된 1명의 금액이라고 하다
- 김경순 위원이 전년대비 수입을 어떻게 편성하였는지 질의하다
- 손미경 치과병원장이 전년대비 6%증가된 것으로 계상하였다가 실제로는 수입이 감소하여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다고 하다



- 김종구 위원이 의료분쟁비에 대해 질의하다
- 손미경 치과병원장이 치과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에 사용하는 관련 경비라고 하다
- 위원장이 참석 위원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8년도 치과병원회계 제2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안)을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나. 2019년도 치과병원회계 자금예산서(안) 심의

- 손미경 조선대치과병원장이 2019년도 자금예산(안) 규모는 2018년도 187억4백만원 보다 2억9천만원(1.6%) 증액한 189억9천4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수입 및 지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자금수입 및 지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다
- 조성진 위원이 2019년도 대학으로 진출하는 임상교원 인건비가 전년하고 동일한 예산액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질의하다
- 손미경 치과병원장이 치과병원이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70%로 상향하여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하다
- 조성진 위원이 2018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도 치과병원회계 임상교원 인건비를 70%로 반영하는 조건으로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였다고 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다
- 손미경 치과병원장이 치과병원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다, 치과병원은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별도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사회에도 병원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황이라고 하다
- 이철갑 기획조정실장이 치과병원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조성진 위원의 언급대로 예산(안)을 맞춰주겠다고 하였는데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이면 위원들에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다
- 김경순 위원이 대학병원보다 인건비가 더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고 하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대학 및 부속병원 등 산하기관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다. 그리하여 전출금 부분을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다
- 손미경 치과병원장이 법인에서는 균형예산 편성을 권고하고 있고, 이전 치과병원장이 이행하겠다고 하더라도 현재 치과병원 운영구조상 70%로 편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다.
- 문우영 치과병원 직원이 이번에 상정한 2019년도 자금예산서(안)도 약 4억원 적자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하다
- 박상순 기획예산팀장이 대학의 부속병원 전입금 계정과, 부속병원의 대학 전출금 계정을 동일하게 맞춰함을 설명하다. 대학은 2018년에 교직원 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 받았지만 치과병원은 130% 지급하여 대학처럼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다
-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해 1안은 70%로 수정하는 조건으로 안건을 심의하거나, 2안은 동의하지 않고 대학평의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위원들에게 요청하다
- 위원장이 참석 위원의 의견을 듣고, 2019년도 치과병원회계 자금예산서(안)을 참석 위원 전원 보류하는 것으로 안건을 종료하다
- 모든 안건을 심의한 후 회의를 재개하고, 손미경 치과병원장이 이후 임상교원 전출금 관련해서는 2019년 치과병원 경영상황을 보고 임상교원 인건비 부담률의 적정성에 대한 재협의 후 결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2번째는 치과대학 교사 증축은 당분간 유보하겠다고 하다
- 이철갑 기획조정실장이 임상교원 인건비 70%로 계상할 것을 요청하고 2019 및 2020년



- 치과대학 교사 증축 유보하는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겠다고 하다
- 손미경 치과병원장이 2년간 유보가 아닌 치과병원 재정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라고 하다
- 위원장이 2019년도 자금예산(안)은 임상교원 인건비 70%로 수정하고, 치과교사 증축 전입금 1억원을 감액하는 의견으로 참석 위원들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정된 조건으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다. 2019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책정

- 박상순 기획예산팀장이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과 올해 법정 인상 한도는 2.25%라고 설명하고, 2019학년도 등록금 전년대비 책정(안)은 교육부의 학부 입학금 단계적 감축 권고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 634,000원 기준에서 매년 20% 감액한 책정(안)이라고 설명하다
- 김경순 위원이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질의하다
- 박상순 기획예산팀장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2유형 및 국가 재정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다
- 김경순 위원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어떤 강구 방법이 있는지 논의가 되었으면 하
- 조성진 위원이 학생 위원들에게 우리 대학의 등록금이 관련 자료에서 광주 전남지역에서도 많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총학생회에도 이 내용을 잘 전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다
- 이철갑 위원장이 참석 위원들의 의견에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학생위원들은 학교 재정의 어려움과 정부의 각종사업 참여에 대한 학교 측의 노력에 공감하여 2019학년도 학부 입학금 인하 및 수업료 동결, 대학원 입학금 및 수업료는 전년대비 동결로 책정함에 참석 위원 전원이 동의하고 회의를 종료함

라. 2019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안) 심의

- 이철갑 기획조정실장이 2019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은 2,465.5억으로 2018학년도 제2회 추경예산 2,641.5억보다 6.7%(176억) 감소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하다
- 박상순 기획예산팀장이 교비회계 수입, 지출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다
- 이철갑 기획조정실장이 법인에서는 적자 예산이 아닌 균형예산으로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등록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어렵다고 하다
- 조성진 위원이 학생위원들에게 직원 채용도 9급 부서기보를 신설하여 인건비 절감을 노력하고 있고, 대학도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셨다고 하다. 직원노동조합에서는 인건비보다 교내 연구비를 감액해줬으면 좋겠지만 교수평의회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하다. 직원노동조합의 입장은 임금 총액제로 하여 교원, 직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면 한다는 의견이라고 하다
- 김준연 위원이 적자가 139억이 편성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고, 제 단위에서 협의하여 적자 예산을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지원경비 부분을 단가를 낮춰서 편성된 것도 확인하여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다
- 박금수 기획예산팀원이 그 부분에 대해 학생지원경비를 3월부터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우선 편성하고 추가적으로 진행할 부분은 대학의 평가 실적 보안을 위해 학과별로 사업계획서를 수합하였으며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하다



김경

7

- 김경순 위원이 2015년부터 대학 입학정원을 10% 감축한 것과,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 학부 체제로 전환되면서 등록금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하다. 이에 따라 대학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다. 연구비를 더 감액하면 교원들의 연구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다
- 조성진 위원이 연구비와 관련한 직원노동조합에서도 관련 자료를 작성한 것이 있다고 하다
- 김종구 위원이 연구비를 1인 2과제에서 1인 1과제로 줄였고, 연구비를 더 감액한다고 하면 우수 교원의 퇴직이나 연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다
- 위원장이 학생 위원들이 적자 규모를 더 줄여서 요청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에 상정할 예산(안)은 추가적으로 더 조정하여 상정하는 것을 제안하다
- 위원장이 참석 위원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9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마. 2018학년도 잉여금 처리 원칙 심의

- 박상순 기획예산팀장이 2018회계연도는 2월말에 끝나지만 실제 이월금액은 2019년 3~4월 결산시점에 정확한 이월금을 알 수 있고, '잉여금 처리 원칙' 심의를 하게된 교육부 안내사항을 안내하고 설명함
- 2018학년도 회계 결산 후 발생할 잉여금은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운영자금이월액은 등록금회계 자금수지 부족분과 학생들의 교육과 시설 개선에 관련된 예산 항목 등에 사용하도록 함을 위원들에게 의견을 묻다
- 위원장이 참석 위원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을 선언하다

바. 2018년도 병원회계 제1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안) 심의

- 김진호 조선대병원 부원장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자금수입은 본예산 2,206억 4천 6백만원 보다 77억 5천 9백만원 증가한 2,284억 5백만원이고, 자금지출은 본예산 2,205억 8천 3백만원보다 84억 6천만원 증가한 2,290억 4천 3백만원으로 차기 이월 자금은 72억 7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자금 수입지출 총계는 각각 2,362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다고 하고, 수입 및 지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다
- 조성진 위원이 2018년도 임상교원 인건비가 대학으로 60% 반영된 것이라고 질의하다
- 안귀복 기획팀장이 그렇다고 하다
- 이철갑 기획조정실장이 지출이 많이 증가되었다고 질의하다
- 정종훈 기획실장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자율개선 노사합의액이 예측하지 못한 비용으로 약 23억원 증가하였다고 하다
- 위원장이 참석 위원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8년도 병원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사. 2019년도 병원회계 자금예산서(안) 심의

- 김진호 조선대병원 부원장이 2019년도 예산 자금수입은 2,448억 2천 4백만원이고, 자금 지출은 2,448억 7천 9백만원이며, 차기 이월자금은 71억 5천 2백만원으로 계상하여, 자금 수입지출 총계는 각각 2,520억 3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다고 하고 수입 및 지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다

- 조성진 위원이 2019년도 예산(안)이 대학으로 70% 전출하는 금액이 맞는지 질의하다
- 안귀복 기획팀장이 그렇다고 하다
- 김경순 위원이 대학 등록금 수입을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병원에서도 인건비를 인상하지 않고, 대학의 임상교원 인건비를 더 부담해주셨으면 하다
- 김진호 조선대병원 부원장이 대학의 어려움을 잘 인지하고 있고, 병원도 경영을 위해 인력 충원을 위해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하다. 병원은 사업체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고 하다. 하지만 병원도 대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다
- 이철갑 기획조정실장이 대학의 교직원 인건비를 삭감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병원 인건비가 호봉, 승진분 외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질의하다
- 안귀복 기획팀장이 작년과 동일한 2018년 보수규정을 적용하고, 대학으로 전출하는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라고 하다. 이에 덧붙여 성과상여금도 110%로 전년대비 지급 비율을 낮췄다고 하다
- 정종훈 기획실장이 주52시간 근로 도입에 따른 병원의 어려움도 알아주셨으면 하고, 대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다
- 김경순 위원이 타대학병원 벤치마킹을 통해 인력관리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 이철갑 기획조정실장이 병원 노동조합에도 임금 인상을 하지 않도록 전달해달라고 하다
- 김경순 위원이 이전 안건에서 치과병원이 병원하고 독립적으로 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분리할 수 없는지 질의하다
- 안귀복 기획팀장이 같은 지부의 단체로 소속되어 있다고 설명하다
- 위원장이 참석 위원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9년도 병원회계 자금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 2019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종료함

위 회의내용을 확인함.

2019. 1. 21.

위원장	이 철 갑	(인)	위 원	김 종 구	(인)
					
위 원	김 경 순	(인)	위 원	조 성 진	(인)
					
위 원	김 준 연	(인)	위 원	오 정 현	(인)
					
위 원	윤 종 호	(인)			
					